

부로일러업의

위기—그 현장을 가다

김 영 옥

<한국가금협회 편집부장>

지난 4월 27일 이후 국내의 양계업계 특히 부로 일러업계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1971년 겨울 kg당 140원까지 하락한 부로일러 가격으로 인하여 대부분이 도산한 양계인들이 재기해 보고자 사력을 다하여 다시 양계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4월 25일까지 205원(kg당)씩 하던 시가가 170~160원까지 하락하여 다시 양계인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예년의 예를보면 부로일러는 경기변동이 극심하여 최하의 가격으로 폭락하게 되면 일개월 후에는, 다시 경기회복을 하곤 했으나 이번의 폭락된 가격은 약 2개월가까이 계속하고 있다.

물론 6월하순 경에는 약간 가격이 상승하기는 하겠지만, 이번의 부로일러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지방의 양계인들의 표정은 참담하다.

이제 양계라면 더구나 부로일러라면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는 양계인이 있는가 하면 그 지방의 양계인들이 단단히 결속하여 외부지방의 닭을 받지 못하도록 생계상인들을 위협하여 다른 지방의 양계인이 150~160원선에서 쪼쪼매고 있을 때에도 kg당 220원을 호가하고 있는 양계인들도 있다.

국내 각 지방의 부로일러 현황을 알아보자. 또한 생산자이외의 생계상인들의 전망과 동향도 같이 알아보기로 하자.

■ 서울·경기지구 ■

서울근교의 부로일러 사육단지를 살펴보면 망

우지구의 경우는 최대 사양가능 호수가 12호 218,000수인데도 현재 사육중인 수수는 겨우 100,000여수인데도 매 출하시마다 1마리당 20원씩의 적자를 보면서 출하를 하고 있다. 지난 4월말부터 계속되는 불경기에 더 이상 지탱해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밀려있는 사료의 외상값과 병아리의 부채등 돈의 회전때문에 그나마도 기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얘기하였다. 다음 기자가 찾아간 포천군 신음리일때의 부로일러단지도 비슷한 실정을 보이고 있었으며 인천의 북부지방도 총 사양가능 수수 448,500수 중에서 현재 사육중인 수수는 약 150,000~200,000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였다.

기자가 찾아 본 고양군 일대, 인천 구월단지, 수원의 임북단지들도 거의 대동소이한 실정을 보이고 있었으며 서울의 부로일러 실정은 부화장의 육계생산실적에 의하여 알 수 있었다. 거의 대부분의 부화장이 부로일러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이고 있었으며 서울의 생계상인들을 찾아봤을때에는 양계업계의 불경기 보다는 국내 전체의 수요 위축을 알 수 있었다.

청량리시장의 S상회를 찾았을때 J씨로부터 나온 첫마디는

「죽겠습니다. 작년만해도 아무리 안팔리는 때라도 1일 800수~1,000수는 처리가 되었는데 요즘은 그 절반도 안됩니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상점들도 요즘은 먹고 사는 쌀 보리이외에는 모든게 팔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일

생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구매가 현저하게 줄어진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서울의 남대문시장의 C상회를 찾았을때는 약간 다른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

「금년에 저의 닭나가는 수자는 작년에 비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이고 서울이고 양계인들이 와서 닭을 좀 뽑아 달라는 사람들이 부쩍늘어서 양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찾아 본 대부분의 생계상들이 수요위축을 얘기하고 있었으며 금년도의 전망을 그렇게 밝게 보고 있지는 않았다. 또 한 부화장의 부로일러 생산실적을 보면 전국적으로 4월 5월에 출하를 하게 되는 2월 3월의 생산실적을 보면 1971년의 2월이 270만수, 3월이 340만수인데 비하여 금년은 2월이 289만수, 3월이 427만수로서 병아리의 생산은 별로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는데도 이와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을 구매의욕이 위축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지방의 부로일러시장을 보면 각양 각색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곳으로 원주지방, 대구지방, 부산지방, 이리, 전주지방, 대전, 천안등 큰 도시와 연결된 근교에서의 부로일러는 거의 도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 강원도 ■

강능·삼척은 220원대

강원도 지방은 지난 4월 27일 이후 kg당 140원대까지 내려갔다.

6월 20일 현재 강원도 일대의 부로일러가격을 보면 원주 160원, 춘천 180원, 삼척 220원, 강능 220원, 속초 200원등인데 타지방과 마찬가지로 역시 교통이 불편하여 시장정보가 어두운 지역과 부로일러의 출하등이 용이하지 않는 지역등은 비교적 고른 가격을 받고 있으며 특히 강능, 삼척지방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가격인 kg당 220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두 지방이 다 같이 양

계인들이 단결하여 타 지방의 닭이 자체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지하면서 자체내에서 너무 많은 닭을 기르지 않도록 생산조절을 하고 있으며 이는 물론 양계인의 수가 많지 않으며 양계수수가 적으니 가능한 일이었지만 어떤 다른 조건보다 가장 높이 평가할 것은 지도자를 중심으로(삼척 : 오 만영씨, 강능 : 김 창식씨) 굳게 단결할 수 있는 양쪽지방의 양계인들의 자세라 할 수 있겠으며 이는 전국의 군 소도시의 양계인들에게 좋은 지침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군 소도시의 양계인들의 외부 시장개척이 어렵다면 자체 시장소비량에 알맞게 생산을 조절하여 항상 적량을 공급함으로써 양계인이 도산하지 않고 소비자도 안정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면 이는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 충청남·북도 ■

충청남·북도에서 비교적 부로일러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대전 천안지방의 양계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부로일러 양계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자가 찾아 왔을 때 에는 이미 폐업하고 난 후였다. 영세한 양계인들은 1개월의 적자를 하를 하고 난후 더 이상 견딜수 없었던 것이다.

■ 경상남·북도 ■

폐계값이 더 높은 대구지방

경상남·북도의 부로일러가격은 부산과 대구지방이 약간의 지역격차를 보이며 가격 하락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부산지방이 kg당 150원선까지 내려가더니 그 가격이 그대로 6월 초순까지 계속하며 6월 10일께 즈부터 170~180원선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대구지방은 다른 지방보다 꽤 오래까지 부로일러가격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였으나 5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kg당 200원씩하던 가격이 부산과 서울지방에서 반입되는 부로일러로 인하여 kg당 150원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폐계가격은 의외로 높아(아마 요리집

에서 쓰는 탓인듯) kg당 20원씩이 부로일러보다 높은가격을 받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산에서 10년간 양계를 해 왔다는 P씨는「이제 부로일러업은 다시 하지 않겠다. 지난해에 그만큼 혼이 나서 꽤 조심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망했다」고 하면서 부로일러라면 이제 냄새가 난다는 표정을 지었다.

또 대구에서 부로일러 종계장을 가지며 부화장을 하고있는 E씨는

「양계하는 사람도 많이 망했지만 부화장들도 거의 다 망했습니다. 이번에 S 부화장이 문을닫고 나머지 부화장들도 아마 밀려있는 의상값들때문에 헤어날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하는 얘기를 하였다. 아닌게 아니라 기자가 돌아본 몇몇 부화장들중에서 부화기를 완전 가동하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

이번에 완전히 재산을 날려버렸다는 대구근교의 K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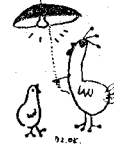
「원 불경기라하지만 작년과 금년같은 양계는 폐가망신하는 업입니다」하며 울상을 짓고 있었다.

■ 전라 남·북도 ■

교통불편이 오히려 유리

전라남·북도의 육계가격은 지난 4월초순에는 g당 250원까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4월말이후부터 하락하여 6월 20일 현재 전라남·북도의 육계가격을 보면 광주지방 200원, 목포지방 200원, 순천·여수지방은 210원, 전주지방은 180원, 군산, 이리지방은 18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도지방의 육계가격이 높은 때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지방의 육계가 고속도로가 있는 전주·이리지방으로 출하됨으로 전주·이리지방의 육계가격은 서울의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이에 비해 고속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전라남도의 육계가격은 오히려 평준화된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교통이 불편한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도 있



겠다.

전라남·북도지방의 부로일러는 병아리 출하수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200원선에서 가격의 유지가 가능하리라 한다.

이상 전국 대부분의 부로일러업자가 앞담현실속에서 도산을 했거나 도산직전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과거의 예를 보면 1~2개월의 불황이 오고난후 다시 호경기가 돌아와 1개월만 출하를 하게 되면 복구를 하게 되었으나 작년말에 이른 이번의 불경기는 아무래도 쉽게 복구할 수 없을만큼 큰 타격을 양계인에게 주었으며 이번의 불황으로 인하여 많은 양계인이 도산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국내 전체적인 수요 위축으로 인하여 쉽게 호경기가 오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우며 좋은 경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부로일러 kg당 200원이상 오르는 힘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RD라고 진단되면 곧 전계군에 타이란을 투여하십시오.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약이지만 가장 값싸게 치료했음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타이란-10 (TYLAN-10)

SF® 과학사료공사

공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봉동 망우지구 22-4

TEL. 28-5537